

# 영혼과 연결된 곳

## 이타적 유전자

손필영  
시인·국민대 교수



“고향은 나의 영혼이 연결된 곳이다. 절대 떠날 수 없다. 끝까지 내 집과 고향을 지키겠다”. (조성흠 특파원, 안타키아 아다나(튀르키예) 연합뉴스, 2월 11일자)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아다나주의 아다나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기자가 인터뷰한 사람의 말이다.

이 사람은 아이들을 이탄불 친지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하타이 집으로 돌아와 고향을 지키고 복구해야 할 이유를 말했다. 그의 영혼과 연결된 고향을 지키겠다는 말이 이번에 죽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인간이 육신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인 영혼으로 존재한다면,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의 남자들이 자신의 영혼과 연결된 고향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영혼을 느끼는 일은 흔치 않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고용인의 죽음>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건조한 땅을 잘하는 일꾼 사일러스는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고용되었다가 언제나 임금을 조금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아다나 공항에서 이재민들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줄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더 주는 곳으로 떠나 주인인 워런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

어느날 기진맥진한 늙은 사일러스가 주인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주인의 아내 메리는 그가 누울 자리를 마련해 놓고 워런을 기다렸다 그가 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린다. 사일러스가 횡설수설 하면서 사냥 전 여름 건조단을 같이 쌓았던 청년에게 기회가 된다면 건조터미 쌓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메리는 말한다.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로 여기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리고 그녀는 그 노인 사일러스가 자신의 집에 죽으러 온 것이라며 남편 워런

에게 말한다. 집이란 누군가 오려할 때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곳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인다.

마치 숲에서 기진맥진한 낯선 사냥개가 찾아올 때 받아주는 것처럼. 워런은 30마일 정도 가던 은행 이사인 사일러스의 형도 있는데 왜 그곳에 가지 않았는지 메리에게 묻는다.

물론 그가 스스로 형의 존재를 말한 적은 없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얘기라며 워런은 그가 가족에게 가서 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메리는 사일러스가 자신의 형에 대해 말한 적도 없었던

더러 그곳에 가지 않은 것은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는 워런이 노인 사일러스를 보러 갔다 와서 잠시 있다가 메리에게 건넨 “죽었소”라는 한마디로 끝난다. 좋은 성품을 지니거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인간답게 자존감을 지키고 죽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 시는 말해주는 것 같다. 또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을 의탁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고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것이 영혼의 교감인가? 영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지만 이번 지진 참사를 당한 사람들은 영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는 될 수 없는 이재앙 앞에서 감히 그들의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위로는 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세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온 삶과는 다른 모습을 떠올려보고 싶다.

약 3200여년 전 즈음에 튀르키예의 고대 스킨드로스강(카라멘데레스강) 하구에 형성된 만에서 차나칼레지역 북서부의 트로이아 시와 고대 히랍의 전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천연 항구는 그 500여년 후에 호메로스(호머)의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또한 튀르키예의 아라랏산은 약 5000여년 전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배

가 정박한 곳이라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 배가 실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튀르키예의 하란 출신이다.

또한 이번 지진이 일어난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인 안디옥(수리아)을 비롯하여 튀르키예 곳곳은 1950여년 전의 신약성서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에베소엔 셀수스 도서관과 대 야외극장 등 로마시대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발굴되어 여전히 존재한다. 성서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유배된 밧모섬이 있고 섬 맞은편 내륙에는 예수가 마지막에 요한에게 부탁한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있기도 하다.

또 시인 에이츠가 노래한 <비잔티움의 향해>에서 ‘노인을 위한 나라’로 나오는 성도(聖都)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아시아와 유럽,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으로 오랫동안 역사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오랜 기억의 저장소인 영혼의 고향인 튀르키예의 비극이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으나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영혼이 연결된 고향을 같이 지켜주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다.

## “빛나는인생학교서 인생2막 설계하세요”

### 기고

김태원

광주시빛고을50+센터  
대리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50~60대를 일컬어 장년층이라 한다. 60세에 정년을 하게 돼 남은 인생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장년층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3년 전 광주시빛고을50+센터 문을 열었다.

광주시빛고을50+센터는 장년층의 인

생2막을 위해 생애전환 교육에 나서고 있다. 그중 센터 정체성 확립과 장년층 시민의 행복 준비 모교 역할이 될 빛나는 인생 학교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년도 1~2기 생을 배출했으며 서울 50플러스재단 인생학교 출신 중 우수 강사진을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3~4기 과정은 전년도 센터 인생학교 출신 중 우수자와 광주 시민 중 역량이 뛰어난 강사를 초빙해 활용할 예정이다. 인생학교 교육 방향은 삶의 여정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집을 짓도록 도움 주기 위해 자아 정체성 탐색과 발견, 치유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생 2막은 내 위주가 아닌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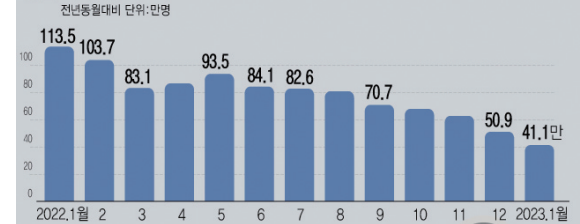
50+세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참여, 내일이 빛나는 광주시 백세시대 시민으로서 잠재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선다. 빛나는 인생 학교 3기 수강생 모집은 2월부터 모집한 뒤 3월 말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빛나는 인생학교는 인생 1막 이후 2막은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 여가, 취미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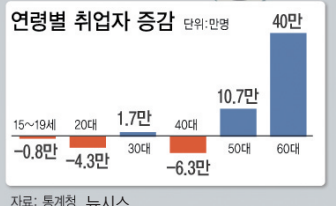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장년층은 광주 동구 학동 증심사역 4번 출구 인근 광주시 빛고을 50+센터(062-228-5050·gj50plus.or.kr)로 문의 바란다.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 취업자 증가 추이



#### 산업별 취업자 증가



자료: 통계청 뉴스시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증창로관. 전관 전연가죽 리클라미니 쇼파석 (이불석보유).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스펀디마켓 증창로점 062-222-7733. 주자장 안내: 전용주자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자장 3시간 무료. 제휴주자장 <주간&야간> 동아주자장, 파레스주자장 3시간 무료. <주간> 황금주자장 3시간 무료.

롯데시네마 증창로관. 1관 교섭, 2관 타이타닉/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3관 타이타닉/아바타:물의 길, 4관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몬스터 하우스2:인비저블 피닉스,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6관 메간,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8관 영웅/교섭/상견니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9관 영웅/다음 사회/유령. 광주광역시 동구 증창로안길 12

교섭. 우리 사랑이 향기로 남을 때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몬스터 하우스2:인비저블 피닉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메간. 더 퍼스트 슬램덩크. 영웅/교섭/상견니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영웅/다음 사회/유령.

타이타닉. 아로거니스탄, 폭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다. 타이타닉. 4K 3D 리마스터링. 25주년 기념판.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료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